〈부당인사 채용 · 폭언 욕설 등〉

독단 운영에 금강대 총장 퇴진요구 확산

지난 5월부터 논란… "천태종단 개입 불가피"

부당인사 청탁 의혹 불거져
학교 측 "절차 적법" 해명

직원노조 "총장 퇴진" 촉구
천태종 말사에 호소문 보내
총장 해명 없이 '묵묵부답'



금강대 종합강의동에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다수 걸려 있다. 이외에도 캠퍼스 곳곳에 이 같은 현수막이 게시됐다.

천태종립 금강대가 현직 총장의 독단적 운영과 직원 인격모독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교내 곳곳에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이와 관련된 대자보가 게시됐지만, 관할 재단인 천태종은 문제 해결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지부(이하 교직원노조)는 지난 5월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말사에 '부당인사 청탁에 의한 직원 채용' '독단적 · 폐쇄적 대학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 300여 통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호소문에 따르면 교직원노조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과제 이행을 위해 신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서 부당인사 청탁이 발생했다. 채용된 직원은 조건이 월등한 타 경쟁자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지만 총장이 일부 평가자를 회유해 점수를 고쳐 올려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노조는 또 "잦은 음주운전, 전체회의 등 공식 석상서 직원들에 대한 총장의 무차별적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도 자행되고 있다"며 종단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교직원노조가 주장한 부당인사 청탁 의혹은 지난 3월 진행된 '취업지원관'과 '교수학습지원센터(CTL) 연구원' 채용과정서 불거졌다. 관련 자격증과 업무 경험을 갖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총장의 압력에 의해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는 게 교직원노조 주장이다. 교직원노조 측은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면접 평가서 호평을 받았으나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 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 대학발전자문위원회 교수가 추천한 제자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교 측은 면접서 지원자 점수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금강대 법인 사무처장 도언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특성상 직원이 많지 않아 한 사람이 2~3가지 일을 겸해야 한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뒤)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인물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총장은 인사위원회 평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재청권자다. 대학 관례가 그렇다.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취업지원관과 CTL연구원이라는 공식 채용분야와는 거리가 먼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채용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위원은 "(회유나 강요가) 없지는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본지 취재과정서 총장 지시에 따라 A인사위원이 B인사위원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직원성과급제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직원평가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돼 '총장의 측근 인사 챙기기' 의혹은 더해졌다. 시행 세칙에는 5년 후 평가자료를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직원노조는 7월 7일 대자보를 통해 "사전 설명이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처리됐다. 총장은 측근들만 챙겨온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라고 비판한 뒤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은 비밀유지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다.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자로서 총장의 개인적 품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본지가 확보한 직원 전체회의 녹취파일 확인 결과 총장은 "X판친 사람들은 일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때려잡아 죽이고 싶습니다" "뿌리부터 갉아먹는 X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많은 욕설을 듣고 버텨왔다. 총장 취임 후 10명이 넘는 직원이 그만뒀다.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향한 게 대부분이고, 이젠 이골이 날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취재과정서 총장의 잦은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총장의 음주운전에 수차례 동승했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대리를 부르시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음주 후 학교인근 관사에 주차하며 낸 사고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증언했다.

이에 본지는 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학교 비서실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비서실 측은 "총장님이 구조개혁평가 준비로 바쁘다.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종단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직원노조는 호소문 배포를 비롯해 수차례 대자보를 게시하고, 총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교직원노조에 따르면 7월 10일 가까스로 총장 면담이 진행됐지만 이 자리서도 총장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천태종 종의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교직원노조와 학교 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기와 체험으로 연수원 활용도 높인다

한국문화연수원 '기와 체험시설' 추진 포럼

조계종이 설립한 연수 기관인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이 자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와 체험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문화연수원은 7월 13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문화연수원 기와 문화체험시설 건립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문화연수원이 기와 관련 체험시설을 건립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05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현 연수원 위치에서 고려~조선시대 국내 최대 규모 가마군을 발굴했다. 당시 가마터는 마곡사 중건과 연계됐다는 사실과 다양한 구조의 가마와 기와편 등이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 역시 연수원과 가마 유구들을 어떻게 연계 ·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호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고조사부장은 '공주 운암리 기와가마의 의미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 활용성 등을 고려한 체험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장은 "이제는 단순히 주변 문화유산과 현상만을 보여주는 시대는 지났다. 각각의 콘텐츠가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근 마곡사가 조선시대 대규모 목조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고, 기와를 체험하고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원 내 숙박시설과 마곡사 템플스테이 등 유기적인 공생 방안도 함께 고민할 만하다"며 "기와를 이용한 야외 조형물을 랜드마크로 구성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공동체 복원에 주목하라"

선지식도량, 7월 13일 대안공동체 세미나

불교적 대안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선지식도량(위원장 무위)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1세기 대안공동체의 실험과 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한국불교 공동체의 실험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불교가 미래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복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정토회를 비롯해 진관사, 삼천사, 마곡사 등에서 보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유형과 사례를 예로 들고 공동체 주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사찰이 지역 · 마을 · 도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귀농, 귀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마곡사 등과 같이 사찰의 유휴농지를 귀농자들을 위해 임대해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귀농, 귀촌자들은 젊고 도시에서 활동한 지식인인 경우가 많다. 사찰은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지역 신앙공동체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가 미래사회의 지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인간의 발전 방향에 조응해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가 '해외 공동체를 통해 본 공동체 성패의 조건'을, 수지행 실상사 기획실장이 '마을공동체와 절: 실상사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대 종단 여성 회원들은 7월 11일 천도교 중앙대교장에서 "어머니답게 살겠다"고 선포했다.

7대 종단 여성들 "어머니답게 살겠다"

7월 11일 선포식…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일환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

7대 종단 여성 회원들은 7월 11일 천도교 중앙대교장에서 '어머니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350여 여성 회원들이 모여 어머니답게 살 것을 다짐했다. 불교계에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 직할교구신도회 · 반갑다연우야 · 서울교통공사법우회 등 소속 여성 회원들이 참석했다.

여성들은 "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어머니답게 살겠다" 등 다짐을 전했다.

이번 여성들의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는 운동본부 설립 이후 직능 · 직업별로 열린 첫 번째 행사라 의미가 깊었다. 운동본부는 향후 '의료인 답게' 등 각 계각층을 대상으로 직능별 선포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결 의 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석 달 여의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종단을 넘어 불교계 내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의미와 영향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총무원장 선출이라는 중대사를 맞아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의 역할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근래 몇 년 동안 전국 교구본사는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협의회를 통하여 정례적인 모임을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소통해 왔다. 종단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교구의 역할을 공유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 왔다. 지금도 각 교구에서는 지역 불교의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분주하며 중장기적인 목적 불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교구본사는 앞으로 걸어야 할 걸음걸이에 무지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각 교구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첫 단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에 이르러,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상호 협력을 추구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울러 종법 위반과 부조리한 답습을 단호히 배척해 나갈 것을 서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본사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한다.

둘째,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매관 · 매직 및 일체의 공양금과 선물에 대하여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셋째, 후보자의 비전과 종책, 그리고 종단 발전을 위한 원력이 교구 구성원에게 널리 바르게 전해지도록 종단의 위상에 걸맞은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 모두는 공명선거를 이루는 종법상의 근거이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선출문화의 상식이다. 종단 발전과 화합의 반석이 되어야 할 소중한 기회가 오히려 탈법선거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 등 집행부 역시 교구본사 주지들의 이러한 의지에 적극 협조하여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우리 교구본사 주지는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격려와 축하가 함께하는 선거가 되도록 진력한다. 아울러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염원하며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61년 7월 13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일동